

REAL THANKS GIVING

(Luke 18:11~14)

*"But the tax-gatherer,
standing some distance away,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I tell you,
this m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It's the day that everyone wants to give thanks to the Lord. Many people are thankful for hearing the Word of God preached each Sunday. Some people are grateful for their health, wealth, and general welfare. A number of people appreciate the good weather. And certain people are just happy to be here. I know a lot of people came to church today to worship, give their offering, and prepare all different foods for this special time. Each person here wishes to give thanks to the Lord. But what are we really thankful for?

What's the real meaning of Thanksgiving? Psalm 105:1 says,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The psalmist goes on to say, "He has remembered His covenant forever, the word which He commanded to a thousand generations, the covenant which He made with Abraham, and His oath to Isaac. Then He confirmed it to Jacob for a statute, to Israel as an everlasting covenant" (vv. 8-10). This Psalmist is giving appreciation to the Lord God for His eternal promise.

When believers give real thanksgiving there is real power because spiritually they have peace and joy. They are happy. Jesus taught this principle in the story concerning two men, a Pharisee and a tax collector, who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Pharisees were considered to be high, mighty, and righteous people and tax collectors were looked upon as low, weak, and sinful people. These two men went before God to give their appreciation and thanksgiving. Let's learn the heart of real thanksgiving by closely observing these two men.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s of all that I get'" (vv. 11&12). This man lives a moral life and does moral things, but he doesn't know what he really needs from God. He truly prays to the Lord but he doesn't realize that he is a sinner. He thinks he's clean. He doesn't know that he is giving thanksgiving for the wrong things. He's a religious leader who is looked up to by many people. Just think how many souls misunderstand and follow him for the wrong things. This guy doesn't have a clue concerning the grace of God. God did a wonderful thing in sending His Son to die for him, but this man doesn't know and only shows the Lord what he has done. He focuses on human effort. He thinks God operates on a merit system and thus can be put in man's debt through good works. He sees himself as better than the guy next to him because he didn't do whatever bad things that guy did.

What this Pharisee needs is personal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He needs the one thing he can't earn by his good works. Amen. Salvation can only be received as a gift,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This Pharisee is proud. He's unconcerned about the publican. The differences between him and the tax collector fill him with pride rather than compassion. True thanksgiving produces thankful

living. When you're thankful for salvation, you tell others of Christ. When you're thankful for the provisions God has blessed you with, you share them with others. When you're thankful for the kindness God has bestowed upon you, you pass it on. When you're thankful for Christian fellowship, you extend that fellowship. When you're thankful for prayer, you pray for others. This is the spirit of real thanksgiving. Sharing God's love with one another is true thanksgiving. When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r heart you will have spiritual blessings and be able to witness to other people. You will have true thanksgiving to the Lord.

The Pharisee was unchanged when he returned home. What a sad situation. True thanksgiving changes you. This Pharisee didn't have true thanksgiving and because of it he went home without change. Indeed, by going to the temple he went to a very good place. He also went for a very good purpose, to pray. The problem is that he went home unchanged because of his pride. He didn't think he needed change. He didn't think he had to change. Millions of believers leave God's house each Sunday unchanged. Please don't let that happen to you today. On this Thanksgiving Sunday, open your heart completely and give God the praise and gratitude He deserves. True thanksgiving will change you and open the door to eternal life. You will spiritually change when the Son of God, the blood of the Lamb, comes upon you.

You can see true thanksgiving in the tax collector's actions. He stood some distance away from the Pharisee and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He pounded his chest, pr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v. 13)! This publican faced his sins and in seeking God sought forgiveness. There's nothing superficial about his response. He knew he was a sinner. He knew God's mercy. Praise God, this man went home a new man. He went home forgiven. Jesus said,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v. 14). What a change! Now, this tax collector could be truly thankful.

Do you have true thanksgiving in your heart or are you just thankful that your son got into a good college, or that your daughter is beautiful, or that you got a promotion and will make more money? Are you proud of these things? Don't be like the Pharisee. You are dealing with the Lord God who gave His son for your eternal life. Are you thankful for that? Do you really see and understand that you are a sinner in need of salvation? Bring all your burdens and troubles to Christ and He will have mercy upon you. Don't come to Him with your human pride. Only through His grace can you be changed. True thanksgiving changes you because God wants to change you. That's why He sent His Son to die upon the cross. Don't go home unchanged. Don't go home with your pride. I hope you will leave this holy place today with true thankfulness to God and be changed and receive His gift. 

참된 감사

(눅 18:11~14)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참된 감사의 의미

다움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재산,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행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깁니다. 추수감사주일처럼 특별한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자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105:1절이 말해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는 그 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시 105:8-9). 시인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믿는 자들이 참된 감사를 할 때 진정한 힘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기도 하러 올라왔던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을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고 힘있고 영으로 온전하고 사람이라고 여겼고, 세리는 자기인정과 반대로 자신을 천하고 보잘 것 없으며 죄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참된 감사의 마음을 배워봅시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려나이다”(11~12절).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도덕적인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으며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고백과 용서 받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보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그를 따르는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늘어놓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벌제도를 운행하시므로,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믿고 있는 세리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세리와 같은 악한 것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삶

이 바리새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선한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하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이 바리새인은 교만합니다. 그는 세리에 대하여 전혀 개회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다른 점은 동정보다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하는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에 감사할 때,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부신 친절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감사할 때, 그 교제는 확장됩니다. 기도가 감사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에 대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실 때,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참된 감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바리새인은 집으로 돌아가 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목적을 갖고 기도가 위해 성전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교만했기에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어진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여시고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참된 감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영생의 문을 열게 합니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리의 회개와 변화

여러분은 세리의 행동을 통해서 참된 감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늘을 향해 치마를 흔들지도 못하고 서 있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합니다(13절).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사람은 세사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14절). 진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세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어 돌아가야 함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대상에 인하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우며, 여러분이 숭신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자랑합니까? 바리새인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해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나오지는 마십시오. 오직 그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으신 이유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리고, 변화되며, 그분의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김성관 목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내일 시냇가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1월 11일(월) 카르나타카의 무슬림들

카르나타카는 400개 종족들로 구성된 천오백만의 무슬림 중 7백만 정도가 있는 인도 남부지역의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그들 중의 겨우 10% 정도만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사람들과 생각한다고 밝혀졌다.

1. 카르나타카의 무슬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하자.
2. 새로 믿는 자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도록 기도하자.

11월 12일(화) 중동교회

중동에는 여전히 종족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과 다툼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1. 당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개종자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령 충만한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창 1:8).
2.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하자.

11월 13일(수) 서부 아프리카의 소년케인들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의 무역로를 개척한 소년케인들은 순회하는 무역상 습관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이슬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도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소년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1. 소년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기도하자.
2. 소년케인들의 ‘부(富)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자.

11월 14일(목) 예멘

예멘 사람들은 복음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이슬람의 개혁으로 예멘 사람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소주의 믿는 자들은 토착교회가 없어 고립되어 있다.

1. 이슬람의 개혁 때문에 공화당의 힘으로 이 나라가 강해지고 있다. 나라를 무슬림화시키기 위해 예멘 사람들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하자.
2. 이 국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11월 15일(금) HIV와 AIDS

HIV는 AIDS(에이즈)로 발전되기 전 단계이다. 이슬람 안에서 HIV와 AIDS에 걸린 환자들은 정치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들을 경계한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과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1. 에이즈로 생긴 고아들과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하도록 기도하자.
2. HIV와 AIDS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하자.

11월 16일(토) 아프리카노만

몇 년간의 전쟁과 가뭄,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의 암울했던 시간들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1. 전쟁과 기아를 피해 서쪽으로 피난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2. 아프리카노만의 믿는 자들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소망이 없는 자국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11월 17일(주일) 터키-싱반되는 땅

동양과 서양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땅 터키. 이곳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곳인 에페소, 이베 이곳에는 다시 성령의 불길



1.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길 사역자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2. 터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절대적 은사와 부지런한 종의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계획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준비하신 것들이다. 터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용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십자가 14

그리스도 - 화해(reconciliation)의 집행자

십자가의 성취를 보여주는, 네 번째 이미지는 ‘화해’이다. 사실이 화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미지이다. 우리는 종종 분란이 있는 가정을 볼 수 있으며, 적대감을 가진 친구나 동료들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화해’라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화해했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회복했다거나, 우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개되는 것은 원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해의 성경적인 개념과도 바로 연결된다. 화해란,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바른 관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화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5:18-21의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창시자라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본문에는 여덟 개의 동사 -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실, 하나님이 주심, 하나님이 부활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심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집행자라는 사실이다. 위 본문 18과 19절에서 바울은 각각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해를 집행하셨는가?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진술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기를 거절하시고 대신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바로 화해의 사신(使臣)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의 일을 이루셨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이성욱 목사)

전도부장 / 김광남	작은부장 / 전홍렬	19 / 고재승 <u>함영희</u> 이수경	이 사 / 김의철, 노광원, 김광남, 윤성철, 임무현, 전홍용,
놀이존부장 / 박철구	전도대장 / 한승구		전홍열, 김구형
남녀전도부장 / 황의만	이음전도 / 전홍렬	행정위원회	감 사 / 차신득, 이하영
교정전도 / 없음	경찰전도 / 노영한	행정위원장 / 전홍용	
		서 기 / 김영달	회 계 / 김영은

구역역량

자기를 살피고

동아, 부전 2구역 / 구역장 김학선, 전옥순 집사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안에서 연합과 교제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 구역원들은 그 이유를 말씀에 나온 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누고, 각자가 자기를 살피지 않았던 경우를 고백했다.

한 구역원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만찬 때 정말로 흘려버리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여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불화'로 인해 생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곤 하니 그러한 감동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에 대해 다른 구역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회개했다.

구역장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은 안에서 연합한 한 형제요 자매인데,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주변의 죄만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아직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가 죄인이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불평이 생기고, '불화'를 만드는 것이다.

임신영 권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그 피와 살을 대하면 나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을 불평하는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라고 말하고, 다음 성만찬에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기를 촉구했다.

성만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주님 앞에서 오직 '자기를 돌아볼 때' 각 성도는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할 수 있다. 성만찬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며 오히려 불화가 생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삶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충현의 성도들이 성만찬을 통해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권오섭 기자)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2편

예 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전(前)편 121편은 시편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시행하시며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면케 하신다'는 것을 단호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시편이다. 이어지는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정의 발걸음 옮기는 자 예루살렘 성, 곧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니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8). 마치못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리거나 남편, 아내들도 있지만 그러한 강제력은 길어야 몇 년일 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원에서 예배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 122편의 저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를 알려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결정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옛적 히브리인에게 지정된 예배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였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죄에 대한 책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진리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능과 지식, 건강, 배경, 언어, 경쟁심 등의 정도와 수준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때에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좌정(坐定)하셔서 내적·외적 연합을 건축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탄탄하게 잘 지어진 곳, '각 지파가 올라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창3:10),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살후 2:13),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골 8:14) 그 길을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도 알게 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배 시에는 각기 다른 모든 지파가 단일한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능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 다양한 상황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엄혜련 기자)

다음 주일 찬송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967년 개편찬송가 편찬사로 전영택 목사(1894-1968)가 작사하였고, 구두희(1921-) 장로가 작곡하였다. 크리스찬 가정은 곧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은 모든 일이 다 즐겁고 복되고 감사할 뿐이다.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중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움 동산이라.
-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움 하루하루
- 2절: 아버지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건의 초기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은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찬송은 예수님이 친히 보하시고 만져주시는 따뜻한 가정이 느껴지도록 부드럽게 불려야 한다. 특히 후렴에서 높게 올라가는 부분을 조심해야 하며, 두 번의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그 음의 구성이 같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정확히 불려야 한다.

(전원위희)

양호실

6교구 양태영 성도(남72세) 위암인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에서 기도 중입니다. 환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9교구 황순화 권사(여68세) 폐암 말기로 치료 중입니다. 환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황순기 집사(여50세)는 몸이 마비되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으로 자가에서 투병 중입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호섭' 성도를 소개합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고 자영업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북부 시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다가 제대하고는 신앙생활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충현교회였습니다. 불교도인 아내에게는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지 못했고, 아들하고만 함께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낯설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곧 북부 시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구원을 주신 보듬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 교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부터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이 매주 반겨주시고 같은 반 성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등 새가족들을 형제나 자식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옥선 통신원)

“기가 자라매...”

김 경 록 (집사, 유아부 김이삭 아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눅 2:52).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가정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이삭이가 자람에 따라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늦둥이라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키우기에, 행여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아이가 될까봐 더 많은 기도를 한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빠 손을 잡고 주일마다 유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했수 2년째가 되어 유아부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 2월생이어서 3세 때 유아부로 오는 날부터 아빠를 떨어지지 못해서 근 반년 정도를 울면서 유아부에 다녔다. 맨처음 유아부에 올라왔을 때, 매 주일마다 우는 이삭이를 보고 예배하기는 커녕 ‘어떻게 혼자 떨어질 수 있게 할까?’가 나의 큰 고민이었다. 주일이 되기 전날부터 유아부에서 혼자 예배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주일이 되면, 유아부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양 가법지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반 년정도가 지난 후 부터였다.

매 주마다 유아부실 입구에서 울며 아빠의 입장을 단정하게 하곤 했던 이삭이가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도 잘 서고, 유아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집에서는 유아부에서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하기도 하고, 복사님 흉내도 내며, 가정예배 때는 대표기도도 곧잘 하고, 혼자 놀 때는 찬양을 부르기도 한다.

거울성경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들은 성경이야기와 인형극은 1년이 지나도록 이야기를 한다. 요즘은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이를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았죠? 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삭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복음도 제시할 줄 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교회와 십자가만 보면 바나나 바나나, 텔레비전이나 길에서 술마시고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면 “아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마시고 담배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죠?” 하고 나무랄대로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까지도 말할 줄 안다.

머칠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울기에 “왜 우느냐?”고 물어왔더니,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를 믿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울었다며, “아빠, 마귀 믿으면 지옥가 죠?” 하는 것이었다. “그래, 하지만 이삭아, 이삭이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를 겁내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마귀보다 훨씬 힘이 세단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마귀가 몰라가도 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간단다.” 그제서야 안도의 표정을 하며,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하는 것이었다.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도 아름답게 자라는 이삭이를 보면서 때로 아빠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인가?

이삭아,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어린이로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알록 신자, 알록 일꾼이 되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이삭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눈물과 기도와 유아부 전 식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음의 학교에서

기업무를 자

뜻기는 고부(姑婦)간의 바른 관계를 알려 주는 도덕적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알려 주시는 구속사의 일부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베히레them에서 흉년을 만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삿 1:1).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뜻과 결혼합니다(삿 1:4). 그러나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 엘리엘과 두 아들이 죽고, 이에 나오미는 이방땅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속한 백성, 자기가 섬기는 신(神)에게로 돌아갑니다(삿 1:14). 그러나 뜻은 끝까지 시도를 따르겠다고 굳은 각오를 합니다(삿 1:14). “뜻이 가로되...어머니께서 가시는 데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삿 1:16). 뜻의 고백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뜻의 결심은 단순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이방 우상의 나라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또 어려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머리를 교훈시켰다는 것입니다.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었던다면, 뜻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겠지요(롬 10:14-15)?

뜻의 이러한 신앙은 이방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삿 4:18-22, 마 1:5-17).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눅 1:27). 이 혈통이 이방여인 뜻에 의해 이어진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롬 3:29, 갈 3:14).

인간의 신분이나 혈통 등 지위고하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무를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뜻은 원래 저주 받을 모압의 딸이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루었습니다(마 1:3-5).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하나님의 족보에 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받아 주시고, 내 죄값을 치워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들 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니 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를 자니라”(갈 4:7).

(권한임 기자)

집사의 생

사도행전(Acts)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선교의 전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머문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얼마나 또는 왜 그곳에 머물렀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방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저 주리라”(마 10:8)라는 말씀대로 성경의 능력을 믿었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알로이 저 말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9-10)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뢰하고 다녔으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마 10:11)라는 말씀대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성기와 지위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라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았고,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지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20)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형성과 성장과 박해(1장-9장),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10장-12장), 첫 번째 선교여행(13장-15장), 두 번째 선교여행(15장-18장), 세 번째 선교여행(18장-23장),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선교여행(21장-26장-28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을 논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머무는 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신중하게 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지역을 점차로 넓혀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선교여행은 그 동안의 지역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최전선의 신분으로 로마지역까지 복음 전파의 명위를 확립해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그 반경이 점차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환 목사 (출판국 지도)

